

한 승신 합춘대상 리플렛

주요 학력: 1976 서울대학 의과대학 졸업

1983: Virginia 주립대학 방사선 종양학과 수련의 수료

2022: Arizona 대학 Integrative Medicine Fellowship 수료

주요 경력: 1983-1990 Virginia 주립대학 조교수

1990-2002 Virginia 주립대학, Case Western Reserve 대학, New York 주립대학 부교수

2003-현재 New York 주립대학 교수

2008-2010 중부 뉴욕 한인회장

2017-2018 서울 의대 미주 동창회장

주요 공적 요지:

1.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여

1970년대 후반으로 부터 미주에 진출하는 서울 의대 동창들의 수가 급격히 저하함에 따라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의 앞날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미주 서울의대 학술대회의 질을 높이고 젊은 동창들의 동창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수 차례 미주 서울의대 연차 학술 대회장을 맡아 학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많은 젊은 동창들의 동창회 참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후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장으로 봉직하면서 선후배간의 우애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신설 및 운영하였으며 미국 교육 병원에서 근무하는 서울의대 동창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본교 학생 및 젊은 졸업생들이 쉽게 선배님들과 접촉 하여 미국에서 임상 실습 및 수련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한 미주 서울의대 학술 대회중 본교 학생들의

학술대회 참관과 미주 진출에 필요한 질의및 응답을 최초로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미주 한인 의사회들을 위한 기여

미주 한인 전문 의학회, KASTRO (Korean American Society for Therapeutic Radiology and Oncology)의 결성과 운영에 총무 (1989-1991, 2004-2007)와 회장(2008-2010) 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한국 방사선 종양학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련의들의 미국 학회 참여및 학술 발표를 KASTRO 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 의사회 KAMA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 학술 대회장을 역임하여 미주 한인의사들의 학술 발전과 결속에 기여 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주 한인및 아시아 인들의 위암 조기 발견과 높은 치료율의 성취를 위해 AASCTF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Task Force)를 2018 년 미주 서울의대 학술 대회중 결성하였습니다.

3. 미주 한인 사회 및 천주교 발전을 위한 봉사

중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하여 중부 뉴욕 한인 교민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중부 뉴욕 한인회 창립 50 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고 중부 뉴욕의 미국 정치, 사회, 문화인들및 한국전 퇴역 군인들의 참여를 도모하여 한국교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 사회와의 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 하였습니다.

한편 한인및 미국인들의 중부 뉴욕 천주교 발전을 위해 기도와 활동으로 봉사하는 신심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 봉사하며 한인 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레지오 마리아 꼬미시움 단장 (Syracuse Comitium, 2006-2012)을 역임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수상 소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함춘대상을 받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과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힘든 경쟁속에서도 항상 모교의 고마움은 잊지 못하였습니다. 세계 어디 내어 놓아도뒤지지 않는 좋은 의학 교육을 마련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많은 동문님들께서 미주에 진출하셔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더욱 더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빛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규섭 동창회장님, 남명호 미주 동창회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